

JTS

VOL.125
2017.0506





Contents

해외소식

02 나마스떼, 동게스와리(인도)

사떼(힌디어 : 함께), 그리고 모두가 새롭다 _ 김민정
인도 활동 소식

14 살라맛, 민다나오(필리핀)

민다나오, 또 한번의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_ 서은실, 허유진
필리핀 활동 소식

국내소식

26 함께 하는 사람들

기아, 질병, 문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을 돌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사천]계절의 여왕, 봄을 놓치지 않는 법!
축제의 장에 꽃피운 JTS 거리모금캠페인 _ 박선영
국내 활동 소식

34 나눔회원소식

후원인의 소리
특별후원금 / 해외JTS 후원금 / 나눔저금통 현황

퍼낸날 2017. 6. 5 퍼낸이 법륜 만든지 박지나, 김기진 퍼낸터 JTS
도운이 정영미, 최경순, 윤미옥, 윤민아, 이주용, 김기연, 권지연, 김영숙, 신지원, 김옥희, 유주영, 김명순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주 소 06653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서초동) 전화 (02)587-8756 후원문의 (02)587-8995
팩스 (02)587-8998 E-mail jts@jtsint.org 홈페이지 www.jt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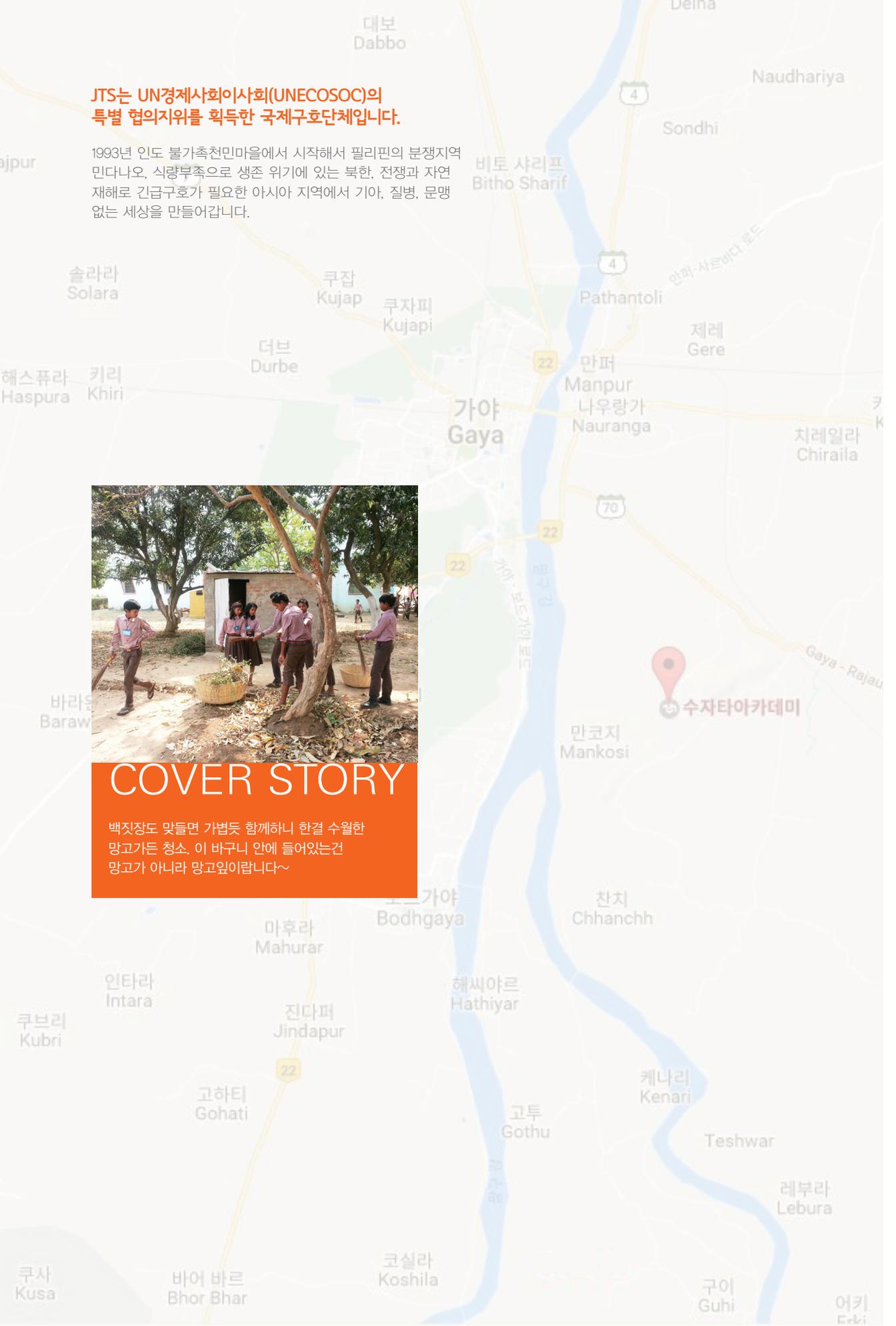
**JTS는 UN경제사회이사회(UNECOSOC)의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한 국제구호단체입니다.**

1993년 인도 불가촉천민마을에서 시작해서 필리핀의 분쟁지역
민다나오, 식량부족으로 생존 위기에 있는 북한, 전쟁과 자연
재해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서 기아, 질병, 문명
없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COVER STORY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듯 함께하니 한결 수월한
망고가든 청소. 이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건
망고가 아니라 망고잎이랍니다~



해외소식

인도

나마스떼, 등게스와리



사떼(힌디어: 함께), 그리고 모두가 새롭다

와글와글 함께 뒹굴며 배웠던, 우리는 리더!!!



4주간의 훈련과정, 드디어 그 짧지만은 않은 시간이 지나갔다. 마냥 배우고 받기만 할 수는 없다. 이제는 나 하나가 아닌 동생들을 이끌어야 한다. 학생에서 선생님이 되기까지의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은 무엇을 함께하고,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꼈을까?

글쓴이 인도JTS·김민정 활동가



유치원 방문

[New Leader Training Program] 새로운 6학년 이야기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Pre_School(유치원)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공부에 전념하고, 중등교육이 시작되면서는 후배들을 가르치며, 함께 공부해나가는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수자타 아카데미의 초등교육은 유치원 교육을 마친 후 1학년부터 5학년까지이고, 중등은 6학년부터 8학년까지 진행이 된다. 이 중등과정을 '리더'라고 호칭한다.

이 중등과정에 앞서 후배 지도를 위한 기본 학습 및 실무교육과 더불어 봉사하는 마음과 의미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러한 [뉴 리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인도에 첫발을 내딛고 나마스페(안녕하세요)와 단야와드(고맙습니다) 밖에 모르던 내가 함께했다.

두근거리는 기대감과 ‘나야 그렇다 해도 아이들 교육에 관찮을까?’ 라는 걱정과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리더아이들이 나와 많이 닮아있다, 함께하고 있다.’ 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나 역시 이들처럼 주변의 많은 가르침과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나의 배움을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 뜨거운 인도에 왔다.

서툴지만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 나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한다.’에서 그들이 나를 끌어주고 있다는 감사함으로 마음의 방향이 돌아가고 있었다.

새로운 6학년 훈련 프로그램은 4주 동안 진행이 된다.

매일 아침 뻘즈실(불교식 기도)을 포함한 기도를 시작으로, 쉬람단(울력 :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함), 마음나누기, 액션송(울동과 함께하는 동요)을 배우며 오전을 보내고, 오후에는 학습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맡아 진행한 아짓 선생님 역시 수자타 아카데미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과정을 거쳐 지금은 이곳의 교사로 함께하고 있다.

새로운 6학년 훈련 프로그램은 35명의 학생들이었지만, 아마도 아짓 선생님은 ‘까?’ (힌디어로 ‘뭐라구요?’)를 반복하는 나까지 해서 총 36명의 학생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 싶다.



프로그램 진행 첫날 입학식을 진행하고 있다.

디레디레~(힌디어 천천히) 부처님 나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그리고 인정하기

쉬람단(울력 :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함)의 주요 내용은 주로 학교 안팎의 청소와 유치원 견학 및 유치원 수업용 카펫 세탁, 청소를 진행했다.

오전에 2시간가량 진행되는 쉬람단은 35명의 아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고, 그 중 두 그룹씩 아짓 선생님과 내가 나누어 진행했다.

한 팀은 수자타 아카데미 내 쉬람단, 한 팀은 유치원 방문 쉬람단을 진행했는데, 쉬람단 일정과 내용 그리고 일 나누기는 아짓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해 주고 나는 안내대로 아이들과 함께했다.

물어본 적은 없지만 아마도 아짓 선생님은 이렇게 같은 말을 4주 동안 무한 반복하지 않았을까? 한국어 실력도 수준급인 아짓 선생님은 고맙게도 힌디로 묻는 나에게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었다. 마무리엔 ‘압(당신) 괜찮아요?’ 라는 말도 함께.

40도를 넘나드는 이곳 인도에서 일을 하기란 쉽지만은 않다.

처음엔 ‘뜨거운 태양마저도 괜찮다!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마냥 좋기만 하다’ 던 나도 ‘쉽지 않다...’ 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 망고가든 청소는 아이들이 가장 지루하고 힘들어해 보였다. 매일 나뭇잎은 떨어지는 시기이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하는 꼭 필요한 일임은 맞다. 하지만 같은 울력을 매일하기에 마냥 흥미롭지는 않은 일임은 확실한 것 같다.

드디어 이곳 저곳에서 울력을 하지 않고 노는 아이들이 생기고, 계속 할 것을 서툰 힌디어로 말하는 나에게 아이들은 ‘후야(힌디어 끝났어요)를 반복했다. 아짓 선생님의 안내대로 나는 계속 할 것을 요구했고, 아직 끝나지 않았음이 눈에 보였지만 계속 강요할 수는 없었다.

하루는 교문 밖으로 나가 외부 청소를 진행했다. 계획된 울력이 아니라 괜찮을까 걱정은 되었지만, 망고가든 정리를 계속하는 건 아이들에게도,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했다. 이후 아짓 선생님에게 “노 프라브럼, 압 아즈 까르나 아차해(괜찮아요, 오늘 잘했어요)”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안심이 되었지만, 그날 일과를 아짓 선생님에게 하소연 하며 중요한 것을 배웠다.

“아이들이 자꾸 울력이 끝났다고 해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지만 계속 시키기 어려웠어요.” 내심 걱정으로 마음을 졸였던 내가 뭔가를 하소연하는 듯 보이자 아짓 선생님은 마음을 살피주는 듯 했다. “오케이 시스터”라며 앉아보라 했다. 말이 되는 문장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하소연하는 나의 말을 아짓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천천히 다 들어주었다.

완벽한 대화라고 할 수야 없겠지만 그대로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주어진 조건, 주어진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함께할 수 있구나. 그래야 함께할 수 있고, 길이 열린다.

그 날 아짓 선생님은 나에게도 충분히 설명하고, 아이들에게도 다시 한 번 오늘 울력 시간에 대해 확인했다.

소통이 원활 할 수 없는 새로운 한국인 활동가와 아이들의 답답함도, 그리고 주어진 울력 조건도, 이 조건으로 우리가 함께 일해야 하는 환경도 아짓 선생님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갔다.

내 말도 충분히 듣지만, 아이들의 상태도 다시 확인하고, 일을 풀어가는 것을 보고 믿음이 생겼다. 의사소통도 확실히 되지 않는데 아짓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일과를 보고 해도 될까? 아이들에게 관찮을까? 라는 나의 걱정은 완전히 내려놓았다. 나도 그저 내가 가진 조건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충분히 아이들과 교감하며 진행했다.



수자타 아카데미 내의 망고가든에서 울력중인 아이들

‘어떻해!’가 아닌 ‘어떻게?’

유치원에 방문해서 다시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 같은 카펫과 정식 빨랫줄 없이 담장에 새로 세탁한 카펫을 널어야 하는 상황들이 나에게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떻해!” 가 아니라 “어떻게?” 로 바뀌는 나와 아이들이었다.

큰 대야가 없으면 핸드펌프 주위를 물청소 한 후에 세탁했다. 빨래 줄이 없으면 담장 물청소를 한 번 하고 널면 될 일이었고, 담장마저 없는 유치원에서는 옆 집에서 밧줄을 빌려 나무에 묶어 카펫을 널었다. 아짓 선생님과 아이들 그리고 나는 ‘언어소통 불가’를 문제 삼지 않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더 주의 깊게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며 들었다.

서툰 힌디어로 하는 내 말을 아이들은 찰떡같이 알아듣고 옆 집에 가서 밧줄을 빌려다 주고, 나무에 묶어 빨래 줄을 만들어주고 내가 요구한 일들을 척척 진행해주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가 있으면 옆 친구에게 ‘이런 말하고 있잖아’ 라며 설명해주기도 했다. 언어가 더 이상 아이들과 나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다.



유치원을 방문하고, JTS에서 설치한 핸드펌프를 이용해 카펫을 세탁중인 아이들

나도 아이들도 이렇게 배워나갔다. 유치원을 방문하면 이 과정을 이수한 현재 리더들이 유치원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힌디어를 가르치는 것 뿐 아니라, 목욕 프로그램을 통해 씻는 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린 동생들의 손톱도 깎아 주기도 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리더과정 아이들도 나처럼 '이 배움들을 통해서 똑같이 동생들에게 모르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자기가 아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나누어 주겠지, 그와 같은 과정을 똑같이 걸어온 아짓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훌륭한 어른이 되어주겠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다.



유치원을 방문한 6학년 아이들

공부시간에 책을 다 읽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책을 바꾸며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 옆드려 자거나 자꾸 화장실을 간다거나 물 마시러 간다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상황에 맞추어 조치하고 나중에 아짓 선생님께서 상의했다. 그렇게 문제 삼지 않고, 왜 그럴까라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 아이들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유치원 수업을 위한 읽기, 쓰기, 말하기, 동요와 율동 배우고 가르치기 과정까지 진지하게 배우고 익히는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과정은 나도 함께 성장시켜주었다.

보광 인도JTS사무국장님 말씀처럼 아이들의 트레이닝 과정이 고스란히 나의 트레이닝 과정이었다.

모두 다 흘려보내자

아이들과 함께한 4주간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나서는 자꾸만 마음에 아쉬움이 커져갔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었다. 더 배워서 더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종업식과 정식 6학년이 되는 입학식이 되었다.

입학식 때는 전 학생의 전 학부모가 참석을 했다. 이것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뜻 깊은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음에는 왜 아이들이 청소를 해야 하나냐는 반론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마치고는 아이들의 활동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고, 왜 청소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다시 배우고 알게 되었고, 좋은 일 한다며 칭찬까지 했다고 한다.

수자타 아카데미에서 시작한 이곳의 교육과 의식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고작 한 달 조금 남짓한 시간을 보내긴 했지만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무한한 희망을 볼 수 있었다.

학부모들을 모시고 부모님들 앞에서 어엿하게 선언문을 읽고, 새 학기의 다짐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한 시간을 뒤로해야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다 흘려보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프로그램 진행과정이 담긴 영상물을 보고 있다.

“

말도 못 알아먹는
한국인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준 아이들,
이들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 역시 그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훈련과정을 잘 마치고 어엿한 6학년이 된
라잔띠와 라잔띠 어머니

믿음이 주는 편안함

힌디가 안 되는 나에게 바로 리더교육프로그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보광 사무국장님, 뿌리양가 교장선생님, 동료 활동가 김윤미님 그리고 예견된 답답함이었을 텐데도 기꺼이 함께해주고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아짓 선생님, 말도 못 알아먹는 한국인 선생님을 믿고 따라와 준 아이들, 이들이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 역시 그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마음 그대로 아이들을 믿고 마음에서 흘러보냈다.

종업식 때 부모님과 아이들의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주면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내가 이들에게 받은 소중한 가르침을 더 정성껏 나누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물 수리단

전정각산(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기 전 오른 바위산) 끝자락에 있는 아자드비가라는 마을에 있는 우물을 해체하고 있다. 현재 이 마을에 사용할 수 있는 수원은 핸드펌프 4기와 우물 4기가 있다. 핸드펌프는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 4개의 우물 중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우물 한 개가 내부 침식으로 인해서 붕

괴의 위험이 있어서 JTS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해체 작업이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내부 벽돌을 집어내고, 우물을 수리할 예정이다. 현재 이 마을은 147 가구에 720명 정도가 산다. 올여름은 물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회전놀이기구

수자타아카데미 놀이터가 만들어 지고 있다. 벌써 여러 개의 놀이기구를 설치했고, 뱅뱅이는 이번에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다. 철공미스트리(철공 기술자)가 자신이 작업한 작품을 세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모든 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어 내서 설치한 놀이기구를 아이들이 정말 신나게 이용하고 있다. 장인의 숨씨가 돋보인다.



1학년 입학생들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올해 4월 입학한 75명의 1학년 아이들을 위해 특별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에 올 때는 깨끗하게 얼굴과 손을 씻고 머리를 빗고, 옷을 단정히 하고 오세요.” 좋은 습관 만들기를 비롯한 학교의 구석구석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를 소개받고, 화장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뒷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노란색 유치원 교복에 호기심 가득한 눈망울로 학교 이곳저곳을 울망줄망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꼭 어미 닭을 따라 봄 소풍 나온 병아리와 같았습니다.



정부학교 진학생 교육상태 방문점검

수자타 아카데미에서는 수자타 유치원을 졸업한 후 정부초등학교에 진학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원 졸업 후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지는 않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총 116명의 졸업생 중 17명(15%)의 아이들이 돈을 벌러 가는 부모를 따라 타지로 가버려거나 부모님의 무관심 등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의 교복값은 가난한 부모들이 다른 곳에 써버려 교복 없이 남루한 차림으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고, 아이들의 학습수준도 한참 낮았습니다. 선물로 준비한 학용품을 나눠주며 배움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단비 같은 교사 트레이닝

새 학기를 시작하며 9명의 초등교사와 13명의 마을유치원 교사들이 각각 상반기 교사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1박 2일간 진행된 트레이닝에서 교사들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느꼈던 어려움과 보람을 나누고, 함께 밥을 해먹고, 새 학기에 진행될 프로그램 계획을 세웠습니다. 교사교육이 전무한 환경이다 보니 교사들은 가뭄에 단비 만난 듯 시종일관 진지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하는 소감이 많았습니다.



이동진료

지바카 병원에서는 몸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멀어 병원까지 오는 게 힘들어 진료를 못 받는 주민들을 위해 일주일에 두번 마을로 찾아가는 이동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 둘씩 다가와 물건 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필름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이동 진료시에 아이들에게 위생교육 관한 영상을 보여주는데 신기해 하며 아주 좋아합니다.



저체중아 조사 & 지원

지바카 병원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0~5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WHO 기준에 근거하여 영양상태를 조사하고 심각한 저체중아 아이들은 영양 상태가 호전 될때까지 쌀과 비타민,곡물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올해는 3월 말 부터 시작하여 약 보름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운 마을은 병원에서 진행했고 먼 지역은 직접 찾아가서 조사했습니다..



2017년 저체중아 조사를 마쳤고 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정식으로 저체중아 지원이 시작 되지 않았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몇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소식
필리핀
살라맛, 민다나오



14
2017 MAY·JUN

민다나오, 또한번의 변화의 바람이 일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 기공식 &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기숙사 현장 스케치



5월 18일과 19일, 마닐라폴리티치의 바갈랑잇 초등학교 기공식과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각각 열렸습니다. 산간 오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학교가 멀어서, 차비가 없어서, 하숙비가 없어서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과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글쓴이 인도JTS·서은실 활동가, 허유진 활동가



기공식에 참석한 모든 성원들이 현수막을 들고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바갈랑잇 초등학교 기공식 첫 삽을 뜨다 _허유진 활동가

5월 18일 기공식을 통해 바갈랑잇 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사숙소 건축 공사가 공식적인 그 시작을 알렸다. 마을주민, 마닐로폴리티치 군청 관계자, 교육 담당자, JTS 활동가가 모두 모여 새로운 변화, 그 시작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마을에서 공사가 시작될 때 원주민들은 '리트왈'이라고 부르는 의식을 치른다. 이날도 바갈랑잇 마을 다투(영적 지도자)는 대지와 공기 그리고 못 생명에게 이번 공사가 무사히 마쳐지기를 또 마을이 번영하기를 기원했다고 한다. 의식이 끝난 후엔 참가한 사람들 모두 음식을 나눠 먹으며 잔치가 벌어졌다.



리트월이 끝나고 음식을 나눠먹는 마을주민들

군청 부시장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축사에서 JTS 필리핀 이원주 대표님께서 바갈랑 잇과 JTS의 인연과 이번 프로젝트의 취지를 말씀하실 때는 마을 주민들과 관계자들 모두 환하게 웃으며 큰 박수를 보냈다. 바갈랑 잇 초등학교 유치부에 다니는 7명 아이들의 춤 공연을 본 뒤 교실 부지에서 공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삽을 떴다. MOA(합의각서) 체결도 무사히 마쳤다.



첫 삽을 뜨며

인연의 시작

바갈랑잇(Bagalangit)은 키탕글라드 산자락에 위치한 히가오논 원주민 마을이다. JTS센터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비교적 가까운 곳이다. 2005년 학교 건축 대상지를 찾기 위해 마놀로폴티치(Manolo Fortich)군을 답사하다가 우연히 방문하게 된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마을에는 학교가 있었지만, 학생 수에 비해서 교실 수가 턱없이 모자랐다. 마을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은 11Km나 떨어진 칼로마난(Kalugmanan) 바랑가이의 학교에 다녀야 했는데, 이마저도 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일터로 보내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교실 건축의 필요성을 느낀 JTS는 2006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했고,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교실 2칸이 증축됐다.



JTS가 지원한 교복을 입은 아이들 뒤편으로 2006년 건축된 교실모습

JTS의 지원 이후 더 많은 아이가 마을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틈틈이 교육물품 지원에 이어 2016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노후 된 학교 시설을 보수 하는 등 JTS는 바갈랑잇과 10년 이상 꾸준히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

이번 교실 2칸 증축과 교사숙소 건축은 2016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의 방문 당시 기획됐다. 바갈랑잇 학교를 방문한 일행들은 여교사 4명이 마땅히 지낼 곳이 없어 교실 한 쪽을 임시 벽으로 막고 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매트리스와 이불 몇 개를 바닥에 깔아둔 것이 침실 전부였고, 벽과 지붕은 곧 무너질 듯 위태로웠다. 임시 숙소 내부는 창문이 없어 빛도 들지 않고, 흙먼지가 폴폴 일었다.

선생님들은 씻을 곳이 없어 새벽에 사람들 없는 시간을 틈타 교실에 있는 수도꼭지를 이용하여 몰래 씻는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이 놀라웠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선생님들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해주는 일이 시급해 보였다.

기쁨과 희망 그리고 화합

교실 추가 증축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현재 바갈랑잇은 유치부를 포함해 총 7개 학년의 89명 학생들이 4칸의 교실에서 함께 수업을 받고 있다. 오는 새 학기에는 추가로 32명 정도의 학생이 더 들어올 예정이라 지금 교실 상황으로는 그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JTS와 마닐로폴티치 군청은 2017년 건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올 3월부터 손발을 맞춰 이번 교실증축과 교사숙소 건축 공사를 준비했다. JTS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제공하고 마닐로폴티치 군청은 공사에 드는 인건비를 제공한다. 마을 주민들은 몇 번의 공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제법 숙련된 기술을 가졌다.

2006년 교실 두 칸이 증축되고 바갈랑잇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아이들을 일터로 보내기에 바빴던 부모들은 아이들을 일터 대신 학교로 보내게 됐다. 학생들은 결석생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에 다녔다.

교실을 짓고, 교사 숙소를 짓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걸 이번 리트왈과 기공식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기공식 축사 내내 이어졌던 화합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겨본다. 이번 공사는 또 바갈랑잇 초등학교에, 바갈랑잇 마을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까. 6월에는 교사 숙소 건물을 마무리 짓고, 교실 건축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기공식에 모인 사람들



기공식 단체사진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타임캡슐을 묻다 _ 서은실 활동가

5월 19일 오전, 다물록 마카파리 고등학교 학생 기숙사 신축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다. 게티간 시장님과 살마산 부시장님을 비롯한 다물록 군청 공무원, 다물록 군의회, 마카파리 바랑가이 (한국의 구청) 캡틴인 모네사 씨와 인근 지역의 바랑가이 캡틴들, 지역 경찰서장과 경찰관, JTS활동가 등 110여 명이 모여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번 기공식 행사는 다물록 군청, 마카파리 고교와 JTS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먼저 리본 커팅으로 기공식을 시작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처럼 참가 내빈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다음은 기숙사 건축 배경과 계획, MOA 등 문서들을 넣은 타임캡슐을 공사부지에 묻고 역사적인 첫 삽을 떴다.



“

먼저 리본 커팅으로
기공식을 시작했다.
화창하고 맑은
하늘처럼 참가 내빈
모두 즐거운 표정이다.



타임캡슐첫삽



리본 커팅식으로 기공식 진행



JTS와 다물록 군청과 MOA 협약식에 이원주 대표님과 게티간 시장님

다물록 시장님의 부탁

필리핀과 대한민국 국가 제창과 기도로 본 행사를 시작하고 축사가 이어졌다. 게티간 다물록 시장님은 지난 6년간 부시장으로 근무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JTS와의 인연을 이야기했다.

시장이 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JTS와 다물록 군청과의 협력사업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과 감사 인사를 했다.

필리핀JTS 이원주 대표님은 JTS가 마카파리 고교와 기숙사를 짓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마을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바란다면, 이 프로젝트가 끝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협력을 부탁했다.

마카파리 고교 교장 타바모 선생님은 JTS의 지원에 거듭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면서, 기숙사 건축과 운영에 대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JTS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마카파리 고교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다물록 지역은 필리핀 JTS가 지원한 학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07년부터 10년간 13개 마을에 학교 건축을 지원해왔다. JTS가 학교를 지은 마을은 대부분 산속에 있거나, 강을 끼고 있어 도로가 없고, 비 오는 날이면 공사 현장 모니터링도 취소할 정도로 이동에 제약이 많은 곳이다.

JTS 활동가가 마을을 방문할 때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고교에 지원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지만 학교가 너무 멀리 있어 진학을 포기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JTS는 기본적으로 문맹 퇴치를 위한 초등학교 설립만 지원하였지만, 아이들 미래와 마을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2~13년 2년간, KOICA와 다물록 군청과의 협력으로 마카파리에 교실 10칸 규모의 고등학교 건물과 상수 시설을 갖추게 되었고, 그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 수도 많이 늘었다.

“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해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숙사를 짓게 되었다.

드디어 기숙사 신축하다

그러나 JTS가 초등학교를 지원한 산간지역 마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고등학교는 멀리 있어 다닐 수 없는 학교였습니다. 통학을 하게 되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비가오면 결석하게 되고,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려고 해도 하숙집 또는 자취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할뿐더러, 하숙비를 마련할 수 없어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보았으나, 장기적인 비용 측면에서도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이 더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해서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숙사를 짓게 되었고, 애초 50명의 학생을 수용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00명 정원의 기숙사를 신축하려고 한다.

마카파리 고교 학생 기숙사는 JTS 필리핀 최대 규모의 건축물로 가로 30.2m, 세로 28.4m, 연면적 857.68 m²의 1층 건물이다. 침실,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각자 자율적으로 요리할 수 부엌 등 기본 생활 시설과 학생들이 식당, 학습공간, 공연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는 202.4 m²의 다목적 강당 시설이 마련된다. 또한, 침대, 사물함, 의자, 테이블 등 가구도 마련되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다물록 키타스 학교 방문

며칠 전 키타스 선생님께서 이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JTS 지원에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에 이어, 정말 부끄럽지만 학교 보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학교 상황이 심각해보여 실제로 방문해보았습니다.

키타스는 2011년에 JTS가 지원한 곳으로 다물록 물리타 강을 보트로 1시간 30분정도 들어가는 오지 마을로 무슬림 지역입니다. 마을 지도자인 MILF 코만도 블랑코는 JTS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데 안전 지원과 보트이용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3년 분쟁으로 마을을 떠난 사람들이 JTS 학교가 지어진 이래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아이들 수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4명의 선생님들이 유치부부터 6학년 까지 총 89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칸짜리 교실이 모자라 임시 파티션을 쳐서 4칸으로 나누어서 쓰고 있고, 심지어 유치부와 1학년, 3~4학년, 5~6학년은 합반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실 구분이 없으니 아이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고, 게다가 교실 천정이 없어 비가 오면 수업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교실 내부 뿐만 문과 창문, 화장실, 외벽, 교사숙소도 많이 낡고 부서져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마을 지도자인 코만도 블랑코와 다물록 군청엔지니어가 수리할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달부터 바로 수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교실 2칸 증축에 대해 마을사람들과 다물록 군청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키타스 학교 보수 결과는 다음 호에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6
2017 MAY-JUN

기아, 질병, 문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을 돌아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

길벗과 함께한 2017년 명동 어린이날 캠페인

매년 5월 5일이면 명동 거리에서는 방송, 연극, 문화, 예술인들의 사회봉사모임인 길벗과 JTS가 함께하는 어린이날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이 캠페인은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라는 JTS 이념을 알리고 거리모금을 통해 기아, 질병, 문맹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비가 올지 모른다는 일기 예보에 모두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이한 5월 5일 아침. 기우와 달리 화창하고 맑은 날씨 속에 방송인 김병조씨와 뮤지컬배우 김형주 부자의 찰떡궁합 진행으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노희경 작가와 배우 배종옥 씨, JTS 홍보대사 한지민 씨를 비롯하여, 배우 윤소이, 이희준, 임세미, 고보결, 이재우, 차종호, 백승도, 강율, 구분영, 이병훈씨가 참석해주셨고, 모델 이혜정, 한현민, 윤태양, 노우준 씨가 거리모금에 함께해주셨습니다.

무대위에 선 참가자들은 잔뜩 기대되는 듯 환한 얼굴로 함께 화이팅을 외친 후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모금함을 들고 거리의 시민속으로 들어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3년째 JTS 어린이날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노희경 작가를 비롯한 많은 참가자들은 여러해를 함께 해온 덕에 물만난 고기처럼 신이난듯 구호를 외쳤습니다. JTS서포터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팀을 이뤄 의기투합하는 모습에 많은 시민들이 호응해주셨습니다.

참가자들이 거리에서 모금을 진행하는 동안 무대에선 보컬리스트 난아진씨와 인디 통기타 가수 임현정 씨, 공연가 황현희씨가 멋진 공연으로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

이날 모금된 돈은 가난과 신분적 차별때문에 배우지 못한채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지구촌 어려운 이웃들과 갑작스런 재난이나 갈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매년 열정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주는 길벗과 JTS서포터즈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분들, 그리고 참가자들을 응원하며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국내소식·함께 하는 사람들



28

2017 MAY·JUN





[사천]계절의 여왕, 봄을 놓치지 않는 법! 축제의 장에 꽃피운 JTS 거리모금캠페인

글쓴이 사천JTS·박선영 활동가

30

2017 MAY·JUN



왼쪽부터 임연희, 이갑수, 장영진, 장원준, 문미양, 황진희 님

매년 5월이 되면 전국 각 지부에서 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JTS 어린이날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전국 131곳의 지부에서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약 5,500만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봄꽃들의 향기가 가득한 4월, 5월은 전국 방방곡곡 꽃축제를 비롯해 지역 특색을 살린 화려한 축제가 한창입니다. 경남 사천에도 유명한 '사천와룡문화제'와 '삼천포항 수산물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사천지부 활동가들은 '삼천포항 수산물축제'에서 국제기아, 질병, 문맹퇴치를 위한 JTS 어린이날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캠페인 장소를 잘 잡아 부스를 설치하고 동료 활동가들이 모이기 전 기다리느니 먼저 시작하자 싶었는지 먼저 모인 활동가분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 분 두 분 점차 모이다 사람들이 많아지니 모두들 기분 좋게 모금활동을 했습니다.

처음에 천원을 넣어주시고 바로 다시 만원을 또 넣어 주시는분, 본인도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시며 모금해주시는 분, 삼천 원을 주시면서 “제가 6명을 살렸어요.” 라는 등 많은 분들의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금해 주셨는데 캠페인을 할 때마다 항상 좋았지만 이번행사는 시간이 짧게 느껴질만큼 재미있고 신이 났습니다.

‘사람들 반응이 좋았고 따뜻한 마음을 많이 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0도로 ‘폴더’ 인사를 하며 밝고 맑은 목소리로 모금을 하는 임연희 님을 보며 여태껏 너무 기계적으로 해왔었구나 하는것을 새로 깨달았다는 문미양님, ‘지금 내가 한 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 두 명이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아들과 함께 참여하신 장영진 님, 불편한 다리때문에 조금 비틀거리셨다는 정영순 님은 시작하기 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정말 즐거웠고 같이 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모임이 있었는데 중간에 빠져나와 참석하기를 잘한 것 같다는 김희연 님, 한 분 한 분 모여서 많은 인원이 되고, 천원, 이천원이 모여서 무서운 힘을 내는 것 같았던 박선영 님등 캠페인을 하며 느꼈던 소감들을 나누는 활동가들의 얼굴에는 보람과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반기는 듯 폭죽놀이까지 펼쳐진 축제의 장에서 날씨 좋고 사람들도 많고 호응도 좋아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남해에서 학교 마치고 바로 달려와 준 장영진 님, 장원준 군(5학년). 두 번째라 떨리지 않아요



함께여서 신나고 즐거운 도반들



감사합니다. 잘 전달하겠습니다. 목청껏 외쳤습니다.



JTS다문화센터 나비장터

계절은 봄, 날씨는 추웠던 2017년 03월 26일 일요일, JTS다문화센터는 안산시 다문화지원본부 옆 야외 공영장에서 나비장터를 열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옷, 생활용품 등등 다양한 물품, 그 물품의 새로운 주인맛이를 도와주려온 봉사자들, 그 물품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줄 다문화가족들과 함께한 마음 따뜻한 나눔과 가벼운 마음이 되는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봉사자 가운데에는 대만과 중국에서 오신 한국어교실 학생들도 함께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판매후원금은 총421,100원입니다. 가볍고 따뜻한 마음이 널리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조계사 연등회 JTS 부스 진행

JTS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조계사에서 주최하는 '연등회'에 꾸준히 참여하여 실천불교의 성격을 띤 사회활동 단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조계사에서 4월 28일부터 30일 동안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한 연등회를 개최하였고, JTS는 그중 30일 '전통문화마당' 축제의 <NGO마당>에 초대되어 '제3세계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라는 마음으로 구도자의 자세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인지도를 심었습니다.

어느덧 사리(sari) 입어보기 체험 코스는 학생들의 포토존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리(sari)를 보는 순간의 향수가 떠올라서였는지 유달리 인도인들이 <JTS> 부스 앞에서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외국인들의 인기 부스 중 하나, '사리(sari) 입어보기' 체험입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입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신기하기도 합니다.

다음 연등회 때는 좀 더 많이 준비해서 인도, 필리핀 등의 문화도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봉사자들의 아쉬움과 함께 내년을 기약하였습니다.



JTS안산다문화센터 어린이날 캠페인

매 달 셋째 주 토요일이면 만나는 사람들.

JTS의 이념과 천원의 기적을 외치면 몇 명이나 알아들을까 싶지만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통하리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목청껏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비좁은 시장통 상점 여기저기에서 내놓은 짐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파란조끼의 우리를 본 그들은 주저없이 동전과 천원 지폐를 모금함에 넣어 주고는 환하게 웃으며 제 갈길을 가셨습니다.

이 거리에서 만나는 다양한 나라의 이웃들과 눈인사하고, 얼마나 멀리에서 우리나라까지 왔는가 물어보았습니다. 태국,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원곡동에서 만나는 가슴 따뜻한 이들을 진정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완숙함의 지혜 어울림 한마당

JTS는 농촌 독거노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부모님들에 대한 감사와 섬김의 마음을 실천하는 취지로 매년 부산울산지부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두북 어른신 봄나들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패기가 있어 역사를 만들고, 늙음은 지혜가 있어 세상을 순리로 이끈다'는 말이 있습니다. 패기가 넘치는 부울지부 자원활동가들과 완숙한 지혜를 갖춘 어른신들의 하모니가 빛어내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자원 활동가

| | |
|-----|--|
| 인도 | 보광, 뿌리양카, 정동표, 김윤미, 신예슬, 이미경, 김민정, 이정미 |
| 필리핀 | 안병주, 김상훈, 서은실, 허유진 |



후원인의 소리

“

박정순

오늘이 제 생일인데,
저의 작은 보탬이 좋은 곳에 쓰이기를...

김인경

재우야~ 생일 축하한다.
아들 생일기념으로 약소하지만 보냅니다.
뜻깊은 곳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소영

후원자이던 남편(김한)의 첫 기일을 맞아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백승보

배고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세요.~

박정미

인도 불가촉 천민을 위한 학교 건립에
이용해 주세요~

한승희

큰아들 동권 생일기부

최미영

부천시 부명중학교 2016학년도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자율동아리 학생들의 후원금입니다.

윤미영

둘째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둘째 이름으로
이곳에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후면 셋째가 태어나는 데 셋째에게도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나눔, 기부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일시후원금 넣습니다.

안운수

숨씨좋은 친구에게 특별한 날 손뜨게 선물을 받으면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지요.친구의 따뜻한 맘이
이웃에게 회향하기를 진심으로 발원합니다.

윤오희&윤인희

13살 윤오희 & 10살 윤인희 생일을 맞아
좋은 인연을 만들고 싶습니다.

최민경

17.04.10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작년 2학년4반 학생일동 광명경영회계고등학교

나혜원

재수생입니다.
북한에서도 꿈을 꾸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할 수 있는
나라가 오면 좋겠습니다.

”

일시후원금 (2017. 3. 01. ~ 2017. 4. 30.)

북한

강승문 강승문 공연표 김경미 김경주 김도환 김미경 김선호 김소영 김수필 김승희 김용덕 김유진 김재욱 김조의 김진환 나혜원
모든어린이의 행복을 목인방(김홍임) 박원임 박종천 박준우 배경문 배지윤 배혜진 백경화 백승보 북한 서미정 서양숙 손은아 신재영
신종섭 양윤건 와우테크 유정훈 이승진 이요한 이은경 이정일 이진일 이현정 임주현8845 임진선 장순석 정재욱 최미영 한승희 허대영
홍유정

인도

김경란 김광현 김길원 김소영 김승희 김용덕 김유진 김은주 김조의 김진환 박근 박분남 박상철 박새빈 박임수 박정미 배지윤 백경화
백종윤 서미정 서양숙 소민경 소진호 손태정 신재영 신종섭 신종섭 우승태 유정훈 윤미숙 윤미희 윤오희 윤인희 이경옥 이덕산 이윤선
이은경 이정일 이자선 이진일 이현정 인도 임동영.임동기 임보경 정백기 정윤정 정재욱 채현주 필리핀 한승희 허성류 허수호 황인진

필리핀

고숙영 김도환 김민자 김소영 김승희 김용덕 김유진 김조의 김진환 김현미 백경화 서미정 서양숙 소진호 신재영 신종섭 안서연 유정훈
이정일 이진일 정재욱 한승희 허성류

전체

6429 0103228536 01096034242 안도연 (주)아모레퍼시픽 감사합니다 강담정 강미란 강성희 강승문 강중환 강준속 객수연
구시웅5252 구연현 국관석생일 국제구호 국주연 권건우 권경영 권나연 권소연화 권영아 권오현 권은하 금삼승민승필 김정태지
기정임 김경만 김경민 김경아 김경주 김경희 김경희98914 김경희부천돼지 김계화 김기태 김남희 김다경 김대광 김덕주 김만호 김명숙
김명옥 미소원 김미경1 김미경2 김미숙 김미영 김미옥 김민기 김민수 김민정(지니모아) 김민정2910 김보미 김봉선 김서영 김선자
(미소원) 김선주 김선주 김선호 김성옥 김성자 김성희 김소영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연 김수윤 김수일3574 김순애 김승희1 김승희2
김민국 김연옥 김연희 김영림 김영선 김영옥 김영재(미소원) 김영주 김운하 김유진 김은수 김은아 김은 김민경 김민식 김인영 김재은
819 김재춘 김정숙9195 김조의 김종임1581 김종임1581 김준영 김지숙 김지식 김지훈 김지희 김지희 김진호2315 김진환 김창익
김춘희 김태균 김한기1020 김한지 김형섭 김혜라 김호 김호8650 김화경 김희연 나무관세음보살 나무대비관세음 나무아미타불
나연우 남영덕 노하진 대전법당 롯데캐피탈(주) 류수진 류영옥 부천돼지 마로 모든영가앞 문덕권 문서준 문신성 민복례 박경애 박계만
박근택 박금희 박동수 박미라 박미우 박미혜 박상철 박성환 박순양 박순양 박연숙 박영기 박예진 박완임 박윤정 박정섭 박정순 박정인
박정자 박정호 박종연3348 박주하 박준우 박지은 박진현 박진현 박태근한연수 박태화 박해석 박현아 박현진 박희자 박희달 반미정
방현희 배경문 배동규6047 배병문 배진숙 백근구 백경희 백명심하 백승분 백승일 백은수 변동해 서구남 서면-북한돕기 서미정 서석곤
8259 서승희 서양숙 서정 서현수 서혜진 성윤희 세상모두 세월호 소민경 손명자미소원 손영희 손현진 송정영 송중수 송준호 송지민
송현호 시나브로학원 시작기쁨 신동근 신동근 신재영 신종섭 신현주 심경이4523 심가옥 심가옥0280 심가옥2402 안도현 안민지
안병주its 안산다문화나비장터 안산다문화센터 안산다문화행복 안산스리랑카공동체 안윤수 안정숙 안중문 안차애 양승문 양승중(대전)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윤건 양진영0622 염인용 여정민 여정화 오윤경 오윤경 오윤경 오윤경
오재호 왕옥선 우병대 우선영 우선영 우선영 우성배 우순자 미소원 원철웅 원철웅 유경민 유경호 유미란 유선희 유소영 유승열
유승열 유영석 유정자 유정훈 유준형 유진영 유진호 유경미 유경미 유경옥 유명숙 유명숙 유미라 유미영 유병덕(0001) 유병은 9488
유병은9488 유병은9488 윤순현 윤정운 윤지수 윤지수 윤지수 윤지연 윤지현 윤희순 윤희순 이경옥 이경진 이광주 이광주 이광한
이귀숙 이귀숙 이근황-미소원 이다겸 이다겸-이다겸 이미향 이미향 이상범가족 이상수 이상은0718 이석원 이상식부천돼지 이소윤
이숙 이숙 이승호 이승훈 이영한 이영한 이완규 이요한 이요한 이원성 이원성 이원옥 이원형 이원형 이은희 이은희 이자영9414 이재성
이정민 이정여 이정여 이정우 이정희 이주은 이주현 이지연 이진성3259 이해미 이향주 이현숙 이형식 이형원5434 인도필리핀북한
전체사업 임소영 임소형전주돼지 임수현 임양희(무주행) 임윤진 임종택 임준성 임진선 임진선 임진선 임진선5464 장미정 장미정
장세영 장세영 장완식4172 장윤희 장윤희 장현련 장현련 장혜진 전수진 전연실마포돼지360 전진원 정경아 정경아 정다훈 정서영
정성태 정성태 정세운 정여진 정연길 정인규 정인규 정재욱 정진순 정도희 정현옥 정현옥 제이티에스 조남은 조병모 조성규 조수미
조아연 조영자 조영자 조정숙 조준행 조진희 조찬상 조현수0023 조혜진 조혜진 좋은일애쓰세요 주인성 주현희 주현희 주현희 주현희
주원스님 지상금 차지는 차지는 차춘자 채홍필 천향숙 천현준 최경자 최경희 최경희 최근대2650 최기원 최동년 최동년 최동훈
최민경 최유정 최윤아 최윤희 최인미 최인영 최인화 최재운 최재현 최준현 최준현 최현미 탁경자 투게더건강주택연구소 플러스4인방
하승우 하승우 하승우 하승우 하재남 한대륙 한동규 한동영 한미영1601 한승문 한승문 한승희 한신규 한신규 한옥수1634 한원희
한중호 한중호 해묵스님 현금입금 현대사김준영 홍석진 홍예지 홍유인 화정124기 황명옥 황선희 황연정 황영애 황영애 황유진
황유진 황은숙 황재영 황재영 후원김정숙1762 후원합니다. DONNASWANK

미국JTS 후원금 (2017. 3. 01. ~ 2017. 4. 30.)

| | | | | |
|--------|--------|-----|---------------------|-----------------|
| 권혜원 | 무기명 | 유주영 | 정은희 | JJ Families LLC |
| 김명순 | 무기명 | 이동근 | 콜럼버스 정토희 | JJ Families LLC |
| 김민선 | 박경배 | 이동영 | 하주홍 | Kyung J Kim |
| 김민선 | 박경배 | 이동영 | 하주홍 | Lauren Carre |
| 김순지 | 박상희 | 이상섭 | 한규희 | Lauren Carre |
| 김윤지 | 박승용 | 이상섭 | 한성순 | Michael W. Yang |
| 김재명 | 박승용 | 이선영 | Benevity (송호성) | Michael W. Yang |
| 김재명 | 박준현 | 이재철 | Benevity (고옥희, 송호성) | San Lee |
| 김지현 | 박현수 | 이정희 | Catherine Cho | San Lee |
| 김학노 | 박현수 | 이주희 | Catherine Cho | Sean Yi |
| 김학노 | 석은영 | 이지훈 | Hee Jun | Stephaney Lee |
| 나경선 | 석은영 | 이혁 | Hee Jun | Stephanie Lee |
| 남희숙 | 시애틀 법당 | 이혁 | Hyang Chu | Sung Yu |
| 노유경 | 신미라 | 임선희 | Hyang Chu | Union Square |
| 노유경 | 신수지 | 임선희 | Hyang Chu | Cleaners |
| 뉴저지 법당 | 유승묵 | 정수길 | Irene Shim | |



나눔저금통 현황 (2017. 3. 01. ~ 2017. 4. 30.)

후원 문의전화 02-587-8995

♣나눔 저금통을 보내주시신 분의 성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금통에 성명을 내입펜이나 불펜 등으로 명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실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남법당

강동법당

강서법당 4회

거제법당 손경숙 양명선 양용선 유봉준 윤득규 윤정연 이분숙 이영임 정권화

경기광주법당

경산법당 강병곤 박미애 안춘옥

경주법당

계룡법당

고성법당

광명법당

구리법당 2회

구미법당 2회

군산법당 황명옥

군포법당 3회

금정법당 김유현 김정화 김현순 무명옥외숙2개

기장법당

기흥법당

김천법당

김포법당

김해법당

내서법당 2회

노원법당 3회 이재희

대구법당 국민은행 김경남 김성진 김순분 김순이 김현옥 데레사소비센타 동구나이스마트각산점 동구포인트마트각산점 무명10개 박은영 박주영 변세영 송경희 유종훈 이지훈 장대기 장보고식자재마트동호점 장순조2개 정미영 지산동나이스마트 지산동데레사 소비센타3개 지산동포인트마트2개 지현옥 진에나2개

대연법당 3회

대전법당

덕양법당 2회

도봉법당 법당 우경미 이재순

동대문법당 2회

동래법당 강영우 강정희 권명자 김진고 김침자 도영숙 류숙희 무명3개 박채원 이미자 이수정2개 임현준 채영숙 추명숙 허준 홍상진

마산법당

마포법당 김재은 전연실 천향숙

목포법당

문경법당 김혜련

부천법당 김경희 김선희2개 류영옥 이성식

부평법당 권형숙 김연희 김희정 무명2개 이형우

분당법당

사천법당

사하법당

서면법당 박명숙 박부진 신성에 정동균 최선희

서천법당

서초법당 강미경 강복례 강정이 고은실 고복영 고은실 김경희 김기범 김도연 김란경 김란경 김소미 김순채 김아영2건 김옥경 김정선 김준화 김철환 묘덕법사님 무명33개 박문구 박은선 박은주 서현숙 유정화 이기령 이미영 이수미 정규식 정금미 정은옥 정재갑 정지나 최병호신경정신과 최정윤 최혜숙 한경진 한채민 홍의자

서현법당

성동법당

성서법당 2회

성주법당

송도법당

송파법당 2회

송현법당 2회

순천법당 김미란 무명2개

신서법당

안양법당 구영모 무명 석순영

양천법당

양평법당 2회

영통법당 4회

오창법당 고윤정 김미환 홍성희

나눔회원소식

옥교법당 김도현 김보민 김정숙 김중일 오나경 윤나는 이상연 한원희

왜관법당

울산법당 남연주 박창홍 손득례 양승돈 이임주 정용한 조유영 최모희 최미진 황혜주 GS마트대명점

원주법당곽정신 신희순 안미옥 이상훈 홍성호

은평법당 박미라 윤명숙

의정부법당 2회

의창법당

일산법당

전주법당 임소형

제주법당 2회

제천법당 3회

진주법당

진해법당

창원법당

창주법당

통영법당

평택법당 박선주 신인균 윤인선 이승연 장병례 주채명 한지희2개

포항양덕법당

해운대법당 2회

화명법당 김경란 무명2개 박현주 이윤희 정귀자 정성숙 조미현 조미현 최혜영

화봉법당 김옥순 현대전산실물산공장

흥덕법당

기타지역 경남단감농협 구시웅 김명숙 김은수2개 민복례 산들바람공부방 송춘보건진료소 시나브로학원 이상은 이정희 조정숙 주가연 지상금 한승명살래 한옥수 JTS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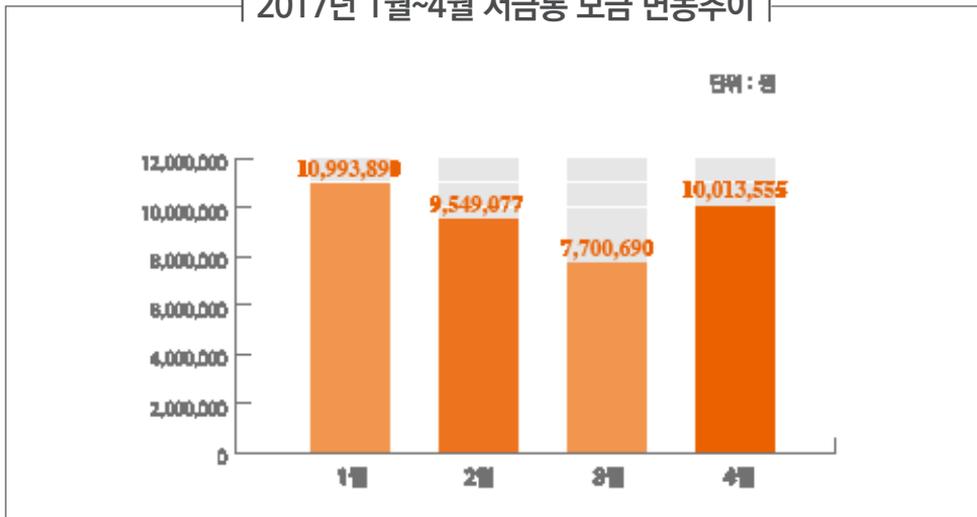
거리모금 현황

(2017년 3월 1일 ~ 2017년 4월 30일)

3월모금 111,000 강동 63,450 강릉 232,700 강서 173,910 강화 147,100 거제 271,210 경기광주 155,040 경산 173,400 경주 760,860 계룡 51,850 공주 241,950 관악 598,740 광명 321,820 광주 459,980 구로 84,600 구리 408,730 구미 659,060 군포 871,300 금정45,550 금정 172,860 기흥 86,000 김천 286,260 김포 74,550 김해 226,350 남양주372,070 내서 377,750 노

원 805,650 달성 73,000 당진 67,210 대구 924,890 대연 303,410 대전 258,674 덕양 222,250 도봉 291,931 동대문 104,100 동래 368,660 마산444,540 마포 193,190 목포 135,710 문경 171,500 부사 66,820 부천 457,200 부평 189,050 분당 381,790 사천 561,630 사하 355,800 서초 1,006,310 서현 205,600 성동29,000 성북 99,070 성서 187,110 세종 396,410 송도 46,600 송파 143,500 송현150,650 수원 333,920 수정 256,880 시흥 105,600 안동 422,300 안산 52,100 안성36,800 안양 379,480 양산 303,440 양천 129,900 양평 189,850 여수 98,700 영주 422,340 영통 332,850 옥교 118,000 왜관 136,570 용인 226,770 울산 115,500 원주 248,450 은평 405,600 의정부 167,300 의창 190,110 인경지부총괄 1,930,270 인천195,900 일산 401,020 장유 266,640 전주 51,000 제주 165,820 중랑 46,650 중앙138,510 진주 1,427,290 진해 273,390 창원 1,067,480 처인 388,730 파주 208,870 평택285,240 포항덕산 734,650 포항양덕 488,140 함안 195,000 해운대 825,330 홍성 310,880 화명 357,410 ATM입금 25,000

2017년 1월~4월 저금통 모금 변동추이





모든 우리아이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손길 자원봉사활동

국내 자원 봉사과 함께 하세요

지원하고 싶은 자원봉사를 선택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내봉사 분야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http://www.jts.or.kr>

JTS 자원봉사 문의 : 02)587-8756

한국JTS 사무실에서, 프로젝트 캠페인 등
여러가지 나눔 활동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손길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주세요.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작은 재능으로 큰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손길이 되어 주세요.

[한국JTS 투명한 기금 운영알기]
JTS에서는 재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연 2회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소중한 기금의 운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눔회원으로 행복을 찾으세요

지원하고 싶은 기금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사용자 : 번역,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후원관리, 영상, 출판/인쇄, 교육 등

JTS 후원 문의 : 02)587-8995

나눔회원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
하실 수 있고 신청서 작성을 통해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덜 쓰고 덜 가짐을 통해서 나누는 일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한국JTS 네이버 해피빈나눔

<http://happylog.naver.com/jtstogether>

한국JTS 나눔저금통

작은 저금통에 큰 마음 담기



아름다운 이웃을 만드는 나눔 나눔회원활동



JTS의 생각

국가, 민족, 종교를 넘어서 먼저 해야 할 일
하나, 배고픈 사람은 먹어야 합니다.
둘, 아픈 사람은 치료 받아야 합니다.
셋, 아이들은 제때 배워야 합니다.

손가락은 각각이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임을 알았습니다.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JTS가 되었습니다.



- ❖ 지정하신 출금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다음 출금일에 2회까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예: 지정일인 10일에 잔액 부족으로 인출이 안되면, 17일과 25일에 인출을 재시도합니다.)
- ❖ 홈페이지에서 정기후원 신청을 하시면, 후원 가입 신청서를 따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 ❖ 후원신청서를 제출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오프라인 후원자 등록"을 하시면, 후원내역 변경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사)한국제이티에스 www.jts.or.kr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746 대표자명 : 최석호
E-mail : cr@jtsint.org FAX : 02) 587-8998 후원문의 : 02) 587-8995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 □ □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1길 7 (서초동)
사단법인 한국제이티에스

0 6 6 5 3